

산업보건의 발전을 기대하며...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차 봉 석

제가 산업의학에 발을 내딛은 지 30년이다 되어갑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세 번이나 강산이 바뀌는 동안, 산업보건제도도 외형적 확대와 함께 그 변화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와 발전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듯이 우리 산업의학 또한 큰 발전과 질곡이 있어 왔습니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이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산업의학회가 발족된 후 이제 명실상부한 전문가인 산업의학전문의가 공식적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보건관리대행을 통해 산업보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산재보험 역시 5인 이하 사업장도 포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산업보건 체계가 안정되지 못한 것이 여러 아쉬움을 남기게 합니다.

회고해 보면, 산업의학은 사업장 혹은 지역사회에서 예방적인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이 중 건강증진이 필요하거나 유소견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접근하여 임상적인 치료 및 대책을 연계하는 형태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건강진단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 직업성 질환 확진 및 추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진단이 제한된 틀에서 집단 검진을 시행하다 보니 소음성 난청과 진폐증 이외에 다른 직업병을 진단해내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유소견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형식에 치우쳐 실제 사업

장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건강이상 소견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일부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건강진단 결과를 놓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양산하였고, 건강진단을 시행하는 우리 전문가들의 만족도의 저하를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건강진단의 질 개선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산업사회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근로자의 건강도 보호해야 하며, 이윤창출과 함께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요구도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성장의 필요성과 함께 개인 및 사회생활의 질 향상 사이의 갈등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장 근로자들은 경제성장이라는 현안에 밀려, 단지 안전보건의 확보와 노동생활의 보전이라는 측면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산업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보전이 추구하는 건강의 유지와 근로자들의 적응능력의 개발 및 노동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과제로 점차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산업보건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도적 개선은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맞물려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급증하는 작업관련성 뇌심혈

관계질환이 제대로 평가되고, 특히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특수건강진단의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직업병 감시체계 구축은 제도개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확대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여러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있는 점은 다행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도개선의 틀 속에 과학적 근거로 내용을 채우고 소신있는 자세로 근로자의 건강과 전문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최근 들어 전문적인 직업 환경의학 진료 서비스가 개발되고, 산업의학과 외래가 개설되면서 다양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산업의학 발전에 새로운 희망입니다. 산업의학 외래는 그동안 다른 임상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직업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사업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업관련성 평가 및 작업적합성 평가가 타과와 차별성을 띠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성 질환을 진단하고 임상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다각도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의학과 외래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진단도구들이 표준화되고, 진단도구의 타당도 평가가 이루어져서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정착은 안 되었지만 희망의 불씨가 커져 가는 산업의학에 많은 후배들이 등지를 틀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